



순창 순-담 메타세콰이어길

명품 관광로드 조성 시동

순창·전남 담양군 협력

'메타세쿼이아 프로젝트'

2020년까지 43억 원 투입

전북도 순창군과 전남도 담양군이 '순-담 메타세쿼이아 프로젝트'에 본격 시동을 걸며 대한민국 대표 명품 관광로드 조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순창군과 담양군은 지난 8월 국토부 지역수요맞춤형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순창-담양간 광역형 관광개발사업인 '순-담 메타세쿼이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양 시군이 1일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순-담 메타세쿼이아 프로젝트 사업'은 순창과 담양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담양에 조성된 8.5km 메타세콰이어길과 순창에 조성된 3.2km 메타세콰이어길간 단절된

9.6km 구간을 연결하여 양 시군에 걸쳐 있는 메타세콰이어길을 한국의 명품 관광로드 상품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국비 23억원을 포함해 총 43억을 투자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동안 진행된다. 또한 메타세콰이어길 중간에 있는 순창강천산~고추장민속마을~담양메타세콰이어길~죽녹원~담양호를 잇는 투어버스 운영하고, 두 지역의 관광거점인 순창고추장마을과 담양 메타세콰이어길엔 양 시군의 관광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투어스테이션을 조성한다.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함께 순창과 담양을 하나의 문화 관광권으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이다. 황숙주 순창군수와 최형식 담양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양 지역이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경계를 넘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

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하고 지역연계 사업의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을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황숙주 군수는 "담양은 700만, 순창은 300만명이 오는 전남북의 관광거점으로 5년안에 두 시군이 협력하여 2,000만명이 오는 시대를 열어보자"며 관련 부서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과 순창은 좋은 자연환경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이웃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든든한 관광, 더 좋은 경제, 더 행복한 담양과 순창을 만들어 나가자"고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순창군과 담양군은 이번 사업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행정 협력을 통해 2018년 전라도 1,000년을 기념하는 전라도 방문의 해에 순창과 담양에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발전 원동력 '마을리더' 키운다

순창군, 아카데미 운영

총 6강좌 교육 프로그램

순창군이 마을리더 양성을 통한 참 좋은 순창만들기 행보에 나서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마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2회 총 6강좌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이론교육은 물론 마을중심 발전의 모델이 되고 있는 충남홍성군 홍동면 마을활력소와 서천군 화양면 월산리 모시마을 등을 방문하는 현장견학도 예정되어 있어

교육생들에게 마을중심 농촌발전의 모델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교육은 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최하고 협동조합 마을발전소팀이 주관하는 교육이다. 첫 번째 강의를 '지방소멸에 대응한 순창지역발전 방향'이 주제였다. 강연에 나선 율거운도시연구소 정경수 박사는 "순창은 이미 초고령사회이고 이상태가 지속되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가 현실화 될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해법은 여기 모이신 분들이 마을중심으로 지역을 변화발전시켜 인구를 증가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연은 '로컬리티와 지역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예원대학교 문운

걸 교수가 진행했으며 참여자들은 소그룹 토의로 열린 토론을 진행했다. 세 번째 강연은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로, 4강은 '정부정책과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5강은 사회적 경제와 지역의 미래로 오는 12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교육은 홍성군 홍동면 마을활력소 등을 찾은 현장학습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이 왜소화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감소문제와 함께 지역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리더의 부재문제가 크다"면서 "마을중심 리더를 양성해 지역에 이끌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조선 대표 여류시인 '김삼의당' 삶 재조명

탄생 248주년 기념행사 개최

강연·시 낭송회·문화답사

남원이 낳은 조선시대 대표 여류시인 김삼의당을 기념하는 행사가 탄생 248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남원문화예술회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탄생일에 맞춰 김삼의당 기념사업회(회장 조수익)가 주관하여 김삼의당의 삶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강연, 김삼의당 시 낭송회, "김삼의당의 흔적을 찾아서"란 주제로 문화답사를 펼쳤다. 김삼의당은 260여편의 한시를 남긴 조선시대 최고의 여성시인으로 전통과 현대의 여인상을 동시에 구비한 여인이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현모

양처의 자세를 잃지 않았고, 끊임없는 좌절 속에서도 교양인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굳게 지켰다. 김삼의당이 남긴 업적에 비해 문화적 가치가 알려지지 못해 대중에게 낯설은 점이 있었지만, 김삼의당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그녀를 재조명하기 위한 연구, 강의, 학술세미나, 시낭송회 등을 통해 다양한 보급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수익 김삼의당 기념사업회장은 "김삼의당은 남원이 낳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류시인으로 그분이 남긴 작품은 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 앞으로도 학술대회 및 각종 기념사업을 통해 김삼의당을 재조명하여 남원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경찰 영예로운 승진임용식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지난 1일 오전 서정실에서 각 과·계장 및 승진 임용자와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예로운 승진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승진임용식은 생활안전교통과 김종우, 은준원 경사, 순화파출소 신지철, 유천상 경사가 경위로 경감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승진임용식은 임명장 수여, 계급장 부착, 동료직원들의 축하 속에서 승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꽃다발 증정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신일섭 서장은 "승진은 계급장의 무게 만큼 책임감이 늘어나는 것"이며 "앞으로도 주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서 국무총리상 수상

남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차 시도 심사와 2차 행정안전부 서류심사를 거쳐 3개의 광역 시도와 10개 시군구가 추진시책에 대해 경쟁을 펼쳤다. 이날 시는 출산장려와 양육환경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출산, 돌봄 거점형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시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남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지리산권 거점형 산모보건 의료 네트워크 구축 ▲도시형·농촌형 공동체 돌봄문화 정착 ▲저출산 극복 아이디어 공모 ▲출산축하용품 지급행사 등의 시책사업이 심사위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출산장려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우수농식품연구회 고문인 김영광씨가 지난달 30일, 완주 안덕마을에서 열린 소규모가공창업사업 종합평가회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남원우수농식품연구회 겹경사 났네~

고문 김영광씨 도지사 표창

김동욱씨 농업기술원장 표창

남원우수농식품연구회(회장 소영진)의 고문인 김영광(47, 지리산하브영농조합 대표)가 지난달 30일, 완주 안덕마을에서 열린 소규모가공창업사업 종합평가회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김 고문은 소규모 가공 창업자 또는 아이디어상품 콘테스트 수상자로 구성된 남원 우수농식품연구회 창립 위원이며, 연구회 설립 후 초대회장으로 추대되어 초창기 연구회의 자생적 운영 공헌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되었다. 현재 연구회의 고문을 역임하면서, 자신의 농식품 창업 관련 노하우를 회원에게 아낌없이 전수, 신규 창업자들의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김영광 고문 외에, 김동욱(지리산 한잎새)회원도 농업기술원장이 수여하는 우수활동상을 받아 남원 연구회원들에게는 겹경사가 되었다. 우수농식품연구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산가공품 생산으로 경제 활성화 기여, 가공업체 상호간 협업, 국내외 엑스포 및 박람회 적극 참여, 현지 바이어 초청 계약 성사로 해외시장 진출, 전통시장 살리기 활성화, 연말연시 소의계축 지원 등 지역사회 내에서 농업인과 기업인이 상생하는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는 단체이다. 소영진 회장은 남원우수농식품연구회원 35명 어느 누구나 상을 받을 만하다고 자랑을 아끼지 않으면서, 회원 제품을 테마별로 모아 담은 '정 담은 꾸러미'를 내년 설 명절 대비 상품으로 기획 중이라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백두대간 역사관 3D 에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